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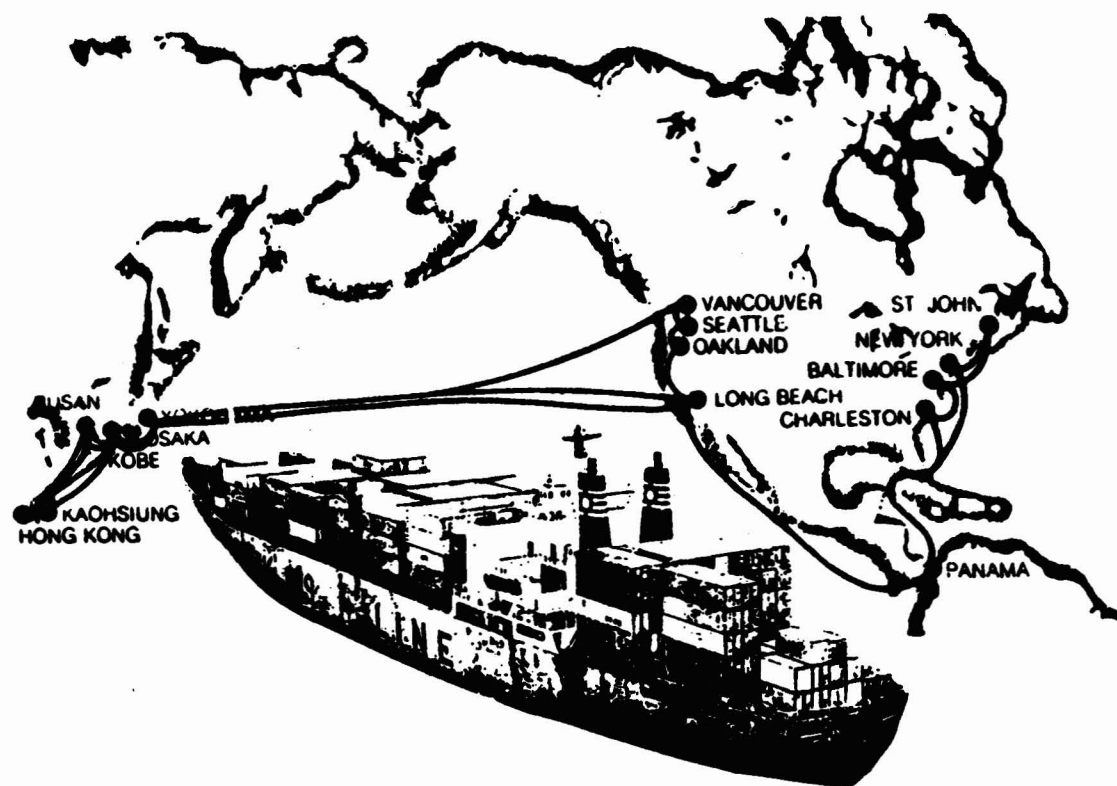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225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로스앤젤레스 지점 (213) 437-8431
뉴욕 지점 (212) 422-5858
샌프란시스코 지점 (415) 777-2800
시카고 지점 (312) 6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밴쿠버사무소 (604) 668-2439
포틀랜드사무소 (503) 228-8816
볼티모어지점 (301) 727-3550
찰스턴지점 (704) 365-4582



한인회보

목차 (CONTENTS)

한해를 보내면서 ...	4
크리스마스와 평화 ...	5
나의 회장직 회고 ...	6
아리랑의 밤 ...	8
1985년도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 ...	9
아리랑의 밤 재정보고 ...	10
씨애틀한인학교 신입생 모집 및 교사이전 광고 ...	11
백경숙선생 수학비교연구 ...	14
『편집실』에서 ...	14
FOR TOMORROW.....	19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해동안 어 려까지 어 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시애틀 한인회가 많은 발전을 한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전체행사에 참여 하고 또 공동 과업을 진행시켜 나간 것은 큰 발전이요 자랑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체가 참여하는 계획을 통하여 한인사회가 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의 건전한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국경일에는 다망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여 단합의 정신을 새로이 하였고 많은 세미나에도 우리 교민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많은 운동경기와 야유회를 통한 심신의 단련과 상호 협조의 뜻과 또 기쁨을 나누는 기회는 교민 사회가 어 려면으로 성장을 보인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전한 향상을 위하여 보어 주신 어 려까지 건의와 협조는 앞으로 이 방면의 발전이 크리라는 것을 믿 해드립니다.

그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시애틀 한인사회가 더욱 인식이 되고 높이 평가 될수 있었던것은 우리 교민에게 보람이 된것 이었다고 봅니다. 교민들과 우리 이사 임원들의 노력으로 주정부나 시 및 또 어 려 기업 및 사설단체에 한인사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참여 하였으며 의견을 표시할수 있었던것은 계속적인 발전의 일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인종위원회와 열원으로 문화를 소개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며 공동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벽 유익하였습니다. 정부, 문화, 경제, 기업 및 다방면의 지도자를 초청하고 한인사회와 같이 앉아 서로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이제는 전통이 되어 가는듯 하니 우리가 이같은 전통을 계속 받아들이 감으로서 다른 사회와의 활동과 아울러 권익 신장에 향상을 기할수 있을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부족한데로 보내거늘 우리 임원단은 그 간 소신껏 일할수 있었던을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가능하게 하여 준 조건에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첫째로 선배교민 및 역대의 지도자 선분들의 수고와 그 기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 및 우리 정부, 기업, 종교 및 사설단체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던들 오늘의 한인회를 이룰수 없었으며 감사하게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이 들수는 없지만 한인회를 위한 어 려 교민들의 격려 와 협력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더욱 올해에는 계속되는 미국 경제사정으로 인해 어 려 어 려운 가운데서도 협조하시는 열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읍니다.

미약한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애틀 한인회는 단단한 전통이 세워져 가는것으로 믿으며 계속적인 발전의 터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교민 어 려분과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회장 오준걸 회장님을 위시한 회장단은 어느 해 못지 않게 헌신적이며 열의에 차 있고 또 능력을 소유한 터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 모두가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주신 협조와 격려 와 참여 가 없이는 십분 그 능력을 나타낼수 없음을 인식하시고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 입니다.

올해 새해에도 교포 어 려분 가정에 큰 축복이 깃드시길 빌며 다시한번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애틀 한인회 회장 오 계 혁

크리스마스의 평화

최용걸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

예수님이 탄생하실때 하늘의 천사들은 찬양하기를 "저국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로다."

1.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동산을 만드사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롭게 살게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배반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에 들어가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불평과 부조화로 가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과의 평화가 깨져 서로 분리되어 불화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여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 가인(아담의 아들)을 위시하여 인간역사는 불화와 쟁투로 계속되어왔다. 인간세상에는 미움과 공포와 싸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인간의 죄는 극도에 달하여 하나님의 진로와 심판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 그책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난 날이니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사 서로 화목케하는 일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저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죽으시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게 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포와 불안과 초조는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2. 사람과의 평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 에베소 2:13에 "이전에 멀찍이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와졌나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도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마땅히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 화평은 화목을 만든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남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야만 국가가 흥하고 가정이 서로 화합하여야 가정의 복을 받고 교인들이 서로 화합하여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된다. 형제간에 서로 화합하고 비난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중심하여 형제화목에 힘쓰라. 우리 한인 사회를 평화의 꽃동산으로 만들자.

3. 세계평화 "땅에는 평화"

오늘날 이 세계는 평화가 없다. 불화와 투쟁과 싸움으로 소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과 공포에 싸여 있다. 사람은 인류의 평화를 빼앗고 싸움을 일으키고 죽이고 멸망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나 평화가 없다" 하였다.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반기독교 세력인 공산주의 국가들이 파멸한 후에야 이 세계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되시고 세계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평화를 파괴하는 악마의 세력을 분쇄하고 이 땅에 하나님나라 평화의 세기를 건설하신다. 거기에는 폭력과 무기와 싸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이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무기를 부셔서 농기구를 만들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쾨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으며 사자가 초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6-9)

이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전망하며 희망 가운데 살자.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상}요란하고 흉박가 높다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평화가 충만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승리의 생활을 하자.

나의 회장직 회고록

신 호 범

시애틀 한인회와 16년 역사를 회고해볼 때 나는 한인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오늘의 한인회를 탄생시키고 산파역을 맡았던 원로 선배 여러분들과 이 한인단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끌고 밀어준 어 러 선배분들께 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물론 많은 단체들이 이곳에 있으나 모든 교포들을 의하고 또 우리 한인 교포를 대표하여 미국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한인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더욱 명칭 발전하여 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처음 한인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73년 부터이다.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결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오 게 되었으며 , 특히 이곳 워싱턴주에도 교포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교포 인구의 팽창은 아울러 많은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였다. 예를들면, 이민국 문제, 언어문제, 직업 문제, 사회보장문제, 법정 문제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교포들 정착과정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영어능력 관계로) 교포 사회에서 부락을 받아 통역이나 다른 봉사로서 교포 사회에 밀접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 한인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무엇보다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심으로 감사케 느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너무 오랜 미국생활에 한국말도 잘 못 하고 한국생활과 관습에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1975년 교포 어 러분들의 추천으로 한인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우리 교포 사회도 잘 몰랐고 한국말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선배분들, 특히 능력있는 이사진과 임원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수고로 봉사하여 도와 주었음을 감사드린다. 그 때 임원으로 도와 준 분들은 부회장에 황수철, 조영, 총무 장전섭, 재무 미세스 스미스, 교육 오개학, 조직 조요한, 편집 광종세, 체육 주상걸, 섭외 오운복, 봉사 김창성, 특히 이사장으로 전기상 박사가 수고하셨고 이사로서는 서두수 박사, 이창희, 이연기, 김길량, 구맹회 재 선생이 수고 하셨습니다.

교민 사회가 점점 커짐으로 한인회도 친목 단체로 부터 봉사단체로 목적을 바꾸어 교포 사회 봉사를 중심으로 노력하였다. 우선 임원진의 수도 늘이고 봉사부, 교육부, 이민상담위원회등 세로 구성했다. 전통적인 한인회 중요행사는 3.1절 행사, 시애틀 뱅쿠버 친선 야유회, 광복절 행사 개천절 행사, 총회 및 선거, 아려랑의 밤 행사로 성대히 거행하였다. 조금 확장하는데 1975년도와 특별 행사로는 4월 23일의 "한국의 날" 행사였다. 교민 사회가 비례해짐으로 우리 사회를 공식적으로 미국 사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이사 임원 어 러분들이 총동원하여 Olympic Hotel 에서 500여명 참석에 성대한 잔치를 하였다. 워싱턴 주지사 Daniel Evans께서 4월 23일을 "한국의 날"로 공포하고 한국인 사회 발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만찬에 부인과 같이 참석하였다. 한국 사회 대표로서는 그 때 주미대사였던 함병춘대사 네외 분이 참석하였고, 시애틀시를 대표하여 Sam Smith 씨가 참석했다. 그 외에 각 정부, 교육계, 사회 단체 및 회사 대표들과 교포 어 러분이 어울려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 기회에 우리 한인사회를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

지난 1983년 뜻밖에 다시 한인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어 러 선배님과 친구들의 부락으로 일년동안 봉사를 하면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희생인것 같다.

다행히 83년도에도 많은 선배, 친구분들이 이사진과 임원및 자원 위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특히 부인들께서도 전부 지원하여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교포 어 러분 그리고 교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사 임원 어 러분에게는 일년동안 너무나 희생이 많았으며 가족생활도 잘 못 하고 한인회 및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 주셔서 그 고마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83년도의 전통적인 한인회 행사는 모두 무사케 마쳤다. 특별한 행사로서는 1983년 4월 23일 주지사 John Spellman께서 "한국의 날"을 다시 공포하고 올림픽 주청사에 테국기를 하루 종일 휘날리게 하였으며 시애틀 시장 Charles Royer 께서도 이날을 "한국의 날"로 공포하였다.

Seattle Trade Center 에서 700여명이 입추와 어지없이 성대히 거행된 기념 만찬회인 "한국의 밤" 파티에는 Spellman 주지사 부부와 주 유엔대사 김경원 대사및 이문수 총영사가 참석하였다. 이날 시애틀시및 주정부 고위층을 외시하여 정치, 경제, 교육계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다. 많은 한국인을 고용한 회사대표, 한국고아의 양부모 대표, 특히 한국 동란 참전 군인대표등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교포 사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간에 친목과 협조자로서와 의의를 뜻 깊게하고, 만찬회가 성공적으로 된것을 감사한다. Spellman 주지사가 말한 " 다른 단체에 가면 이것저것 요구만하는데 한인 사회 단체에서는 감사를 표해서 너무나 황송하고 한국인 사회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반응은 그 날 어 러분이 느꼈던 미국 사회의 반응이었다. 이 행사 준비에도 많은 교포께서 도움을 주셨기에 성공적이었던것 같다.

또 다른 행사로는 Sea Fair Parade에 당당히 참가한 것이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농악대는 연도에 응접한 시민들에게 한국의 춤과 농악을 보여 주어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또 레권도복을 입은 한인청소년및 미국 청소년들의 구경과 대면모습도 인기 있었다. 그리고 60여 명의 남녀 교포들이 바지저고려, 치마를 입고 시애틀 시가를 행진하며 연도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테국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답례하면서 미국 사회에 한국을 다시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많은 교포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특히 고등학교및 대학생들이 어 류방학 동안 쉬지 못하고 농악 연습을하며 땀 흘렸던 일들은 내일 우리 교포 사회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에게 값진 보람을 안겨준 것 같다.

그 동안 압원으로 수고한 분은 부회장 오개학, 광종세, 총무 조성옥, 재무 박태호, 편집 박건홍, 섭외 이현진, 교육 백영숙, 봉사 김영남, 체육 이선남, 홍보 허 권, 청년 이정언, 문화.예술 이창규, 조직 박봉수, 부녀 미세스 한만섭, 경로 이춘영, 이사장 이동엽, 부이사장 손옥봉 이사 엄도승, 전영환, 장부관, 문근성제씨가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인회 주관으로 "시애틀 한인학교"를 설립하였다. 학생수 100여 명에 훌륭한 교사들을 모시고 어 류부터 시작한 한인학교는 한국어, 무용, 해권도 한국역사및 문화등의 과목으로 2세들을 위해 가르치 게 됨을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여겨왔다. 아류답고 씩씩한 젊고 어린 학생들이 매주일 학교에서 모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 것을 볼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를 느꼈다.

그 동안 한인사회를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첫째, 한인회는 교포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대외적으로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욱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한인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길 부락 드린다.

둘째, 한인회는 봉사. 친목 단체로서 한인사회내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인교포들에게 이익과 혜택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때가 왔다고 느낀다. 미국 정책가들에게 한국인들의 뭉친 힘을 보여 (영향을 주는 정책적인 힘을 통하여) 우리 교포 사회 발전에도 유되는 일과 우리 후손들의 장래를 위한 초석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인회는 2세 교육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성의를 보여 야한다. 미국에서 자란 2세및 후손들은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모르고 영어만 하다가는 언젠가 한국인의 얼과 문화를 잊어버린 세대가 될까 두렵다. 보다 적극적인 부모들의양심과 성의를 부락한다.

끝으로 나는 미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인회및 교포 사회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아리랑의 밤

1984년도 아리랑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워싱턴 대학 학생회관 2층 강당에서 500여 명의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 오개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지난 한 해에도 적극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재입 기간을 무난히 마치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세훈 총영사는 격려사를 통해서 한인 교포 사회가 날로 발전하고 결속하여 야할 것이며 앞으로는 한인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자체의 건물에서 모든 행사를 거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85년도 오준걸 한인회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서 겁이 무겁다고 전제하고 전임 회장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힘써 그 뜻을 이어서 한인교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전임 회장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어서 상사지사 협의회장 최봉현씨의 사회로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사고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장내 분위기는 흥겨우게 고조되어 갔으며 오후에만 만만치 않은 친지, 동료 및 선배배간의 정다운 담소를 즐겼으며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잊어버리는 망년회였다.

아리랑의 밤 행사를 위하여 총영사관 및 상사지사 협의회, 한국외환은행 등 많은 기관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찬조금을 보내왔으며 노래자랑 및 경품뽑기 상품으로 현대식품, 제일식품, 중앙식품, 오로라 선물센터, 이점태 자동 차정비 센터와 101바더 샵 등에서 많은 상품을 기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영사관 전화 번호 변경

주 시애틀 총영사관의 전화 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공고합니다.

총영사관 전화번호
(206) 441-1011
(206) 441-1012
(206) 441-1013

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uite 1125, United Airlines Building
2033 6th Ave.
Seattle, WA 98121

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FTD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춘·하계 학교 입학안내

1. 참가자격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외교포 학생 (외국적 포함)으로서 한국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집인원 : 혁명자전원수용 (예정)
3. 교육기간 및 대상 :
춘계학교 (일본지역, 대학생) : 1985년 3월 초순 (2주간)
1차 하계학교 (구미, 동남아지역 중·고 대학생) : 1985년 7월 초순 (2주간)
2차 하계학교 (일본지역 중·고교생) : 1985년 7월 하순 (2주간)
* 정확한 일자는 추후 결정 통지 예정
4. 교육내용
교과활동 : 일반교과... 국어, 국사, 민속문화, 조국의 새모습, 한국예절 등
특별활동... 태권도, 민속무용, 우쿨렐레, 체육 등
현장학습... 고적답사, 산업시찰, 일선방문, 일일입교, 민박 등
생활시간 : 기상-오전 6:40 오전일과-9:00-12:45 (4교시)
오후일과-2:20-4:05 (4교시) 취침-10:30 (오후)
5.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재외공관에서 조정실시)
제출서류 : 지원서 1통 (공관에 비치되어있음)
원서접수처 : 총영사관
6. 경비부담 : 왕복항공료 및 체제·교육비--참가자 자비 부담 (미화 \$300 불 예정)
기타 소요경비는 일체 국고에서 지출
7. 춘·하계 학교 시설 및 서비스 개요
숙박시설 : 교육담당기관 기숙사 (타지역 여행시는 일반호텔)
세탁물 :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세탁물을 위탁받아 저렴한 요금으로 처리해줌
의료시설 : 24시간 응급 가료를 위한 의료진 대기
기타 : 은행, 우체국, 전신업무, 학교내 출장 서비스
8. 유의사항
복장 및 용모 : 간편하고 품위 있는 복장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장발을 피하고 용모를 단정히 할 것. (이 학생은 견바지 착용)
휴대품 : 개인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학용품 및 활동하기 편리한 신발 (교제는 학교에서 지급)
생활태도 : 성실한 태도로 학교규칙을 준수해야한다. 모국의 예절, 생활습관등을 이해하고 적응할 노력이 필요하다.
9. 기타문의 사항
(1) 각 거주국 총영사관
(2) 총괄기관 :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81
전화 765-0261, 0261, 0453, 4295

수입 내역	지출 내역
1. 입장권 판매 수입 \$ 1,710.00 (총 입장인원 416명중 초청인사 84명 찬조금 희사분 99명 입장권 구입한 195명 이사 입원단 48명)	1. 학생회관 강당 사용료 \$ 1,000.00 (실제사용료 \$500 나머지 \$500불은 대학 생회 보조로 지불됨)
2. 일반찬조금 \$ 2,800.00	2. 식사대금 \$ 1,293.00
	3. 감사패및 상장대금 \$ 402.00
	4. 상품구입비 (TV, 전축) \$ 350.00
3. 특별 찬조금 \$ 1,800.00 총영사관 1,000 외환은행 300 상사지사협의회 500	5. 인쇄비 (초청장및 입장권 700매) \$ 160.00
	6. 광고비 \$ 100.99 70.00
	7. 밴드및 가수 사례금 \$ 300.00
	8. 식장 장치 준비금 \$ 382.92
	9. 음료, 주류및 일반 준비금 \$ 592.50
	10. 한인회 제정 수입 이월금 \$ 1728.59
총 계 \$ 6,310	총 계 \$ 4,531.41 4,531.41 \$ 6,310.00

일반 찬조자

노명제 300	황수철 100
업도승 200	김간난 50
김현중 100	신호범 300
김청작 100	김상철 50
김홍식 500	오준걸 100
허남일 60	홍인표 300
이점태 50	박창식 100
곽상영 50	이동립 300
Harry H. Kim 100	

물품 찬조자

1. 박화량 대형벽화
2. 제일식품 350불 상당 물품
3. 현대식품 325불 " "
4. 오로라 식품 65불 " "
5. 오로라선물 센터 25불 상당 물품
6. 우와지마야 30불 " "
7. 중앙식품 30불 " "
8. Lee's Auto & Tire \$200 "
9. 오대양 30불 " "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시애틀 한인 학교

교사 이전
교과정보강
산업생및 수업생 환영

시애틀의 범교포적인 "시애틀 한인학교"는 금번 새 교사로 이전하고 교과정을 보강하여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 관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참작하시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정보강

I. 시애틀 한인 학교의 특색과 장점

1. 한국어 습득 목적이 단순히 한국어 능력 향상을 넘어서서 더 역동적인 것으로서 건전한 자아 의식 소유와 활발한 개개인이 되게 한다는 데 강조하는 점.
2. 한국어 회화능력에 아울러 읽기, 쓰기 등 다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목적별로 실시하는 점.
3. 학생 자치기관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장려 하여 미국 사회와 경험 특히 인종 사회의 축소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관련된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지공하는 점.
4. 지역사회와 어 터자원을 도입하여 학습활동의 실질성을 강조한 점.
5. 각종 특수활동을 장려 하여 학습의 풍부화와 흥미도의 증진을 고려 하는 점.
6. 가정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가정의 좋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점.
7.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가 긴밀한 유대아래 끊임없는 교과정 개선에 주력하는 점.
8. 정규교사 자격중 소지자와 교사업선과 현장 훈련을 통한 교사의 자질향상을 꾀하는 점

II. 교과정 내용

1. 정규교과: ()속의 시간은 일개월 기준
 - 1) 한국어 과목: 한국어읽기 (160분) 한국어회화 (160분)
 - 2) 공통 한국문화, 관습 과목: 고전무용 (160. 분) 화랑호선술 (160분) 역사및전통 관습 (80-120)
 - 3) 선택한국문화, 관습 과목: 서예및 서화 (40분) 고전동화및 이야기 듣기 (40분) 한국음악 (80분) 한국공작및 미술 (40분)
2. 특수교과 내용 :

(1) 알레전체활동	(2) 알레명절 체험활동	(3) 쓰기 읽기 경연대회
(4) 폐팔활동	(5) 총학생회 활동	(6) 가정 숙제 강화 프로그램
(7) 가정독서프로그램	(8) 초청강사강연	(9) 현장답사학습 (Field Trip)
(10) 한국문화영화 상영등		

산업생및 수업생 환영

한인 학교는 수시로 산업생및 수강생을

환영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22-2494 (오 계획)

365-4128 (백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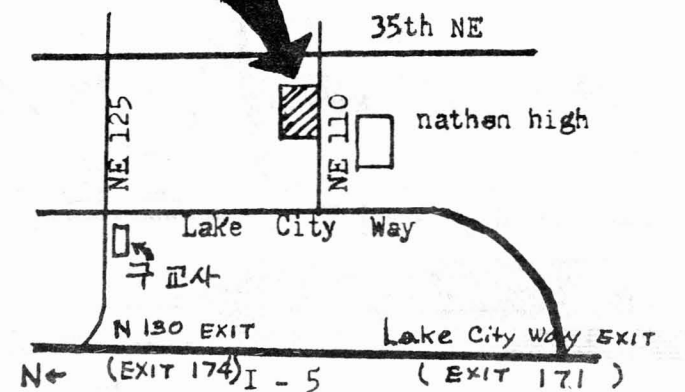
편지주소 Seattle Korean Community School

11051 34th N.E. #201

Seattle Wa 98125

교사이전

신교사 새주소: 11051 34th N.E. #201
Seattle, WA 98125





윤 안 과

윤안과 부속

고급 섀글래스 및 각종 안경테
안경 제조 시설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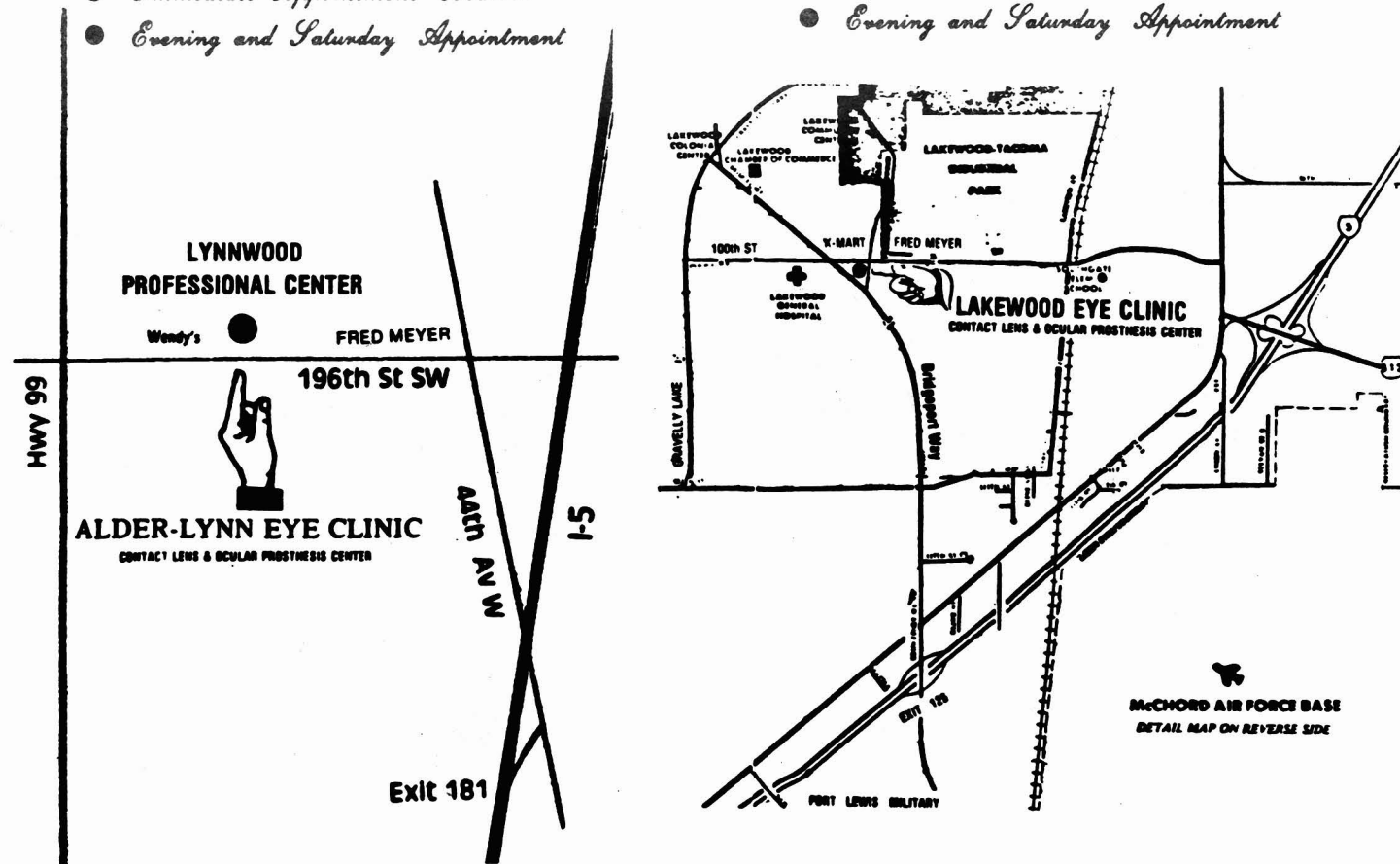
- ◎ Boeing Vision Plan 지정 안과 의사 ◎ Western Vision Service 지정 안과 의사
- Aetna, King County Medical Blue Shield ◎ Medical 정부 보조 coupon 환영
- ◎ Blue Cross, 각종 직장 보험

ALDER-LYNN EYE CLINIC
Lynnwood Professional Center
5017 196th St. S.W. #106
Lynnwood, WA 98036
778-0333

- Designer Eyeglasses
- Immediate Appointment Available
- Evening and Saturday Appointment

LAKEWOOD EYE CLINIC
Contact Lens & Ocular Prosthesis Center
100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582-0760

- Designer Eyeglasses
- Immediate Appointment Available
- Evening and Saturday Appointment



시애틀 · 린우드
778-0333, 778-2657(집)

웨더럴웨이 · 타코마
582-0760 582-0761



시애틀 한인회의 새 일꾼들이 아리랑의 밤에 교포들에게 소개 되었다. 전열 좌로부터 이순모 이사, 광종세 이사, 박법신 편집, 오준걸 회장, 박태호 부회장, 한만섭 이사, 후열 좌로부터 멀린스 교육, 오제희 이사, 백인홍 체육, 김흥식 이사, 박창모 문화, 윤광남 재무, 윤홍남 청년부장.

축

발 전

85년도 신임 회장단과 한인회
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린우드인쇄소

백경숙 선생 수학교육 연구

Seattle School District에 근무 하고 한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백경숙 선생님은 한국과 미국의 공립학교 수학교육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지난 11월 한국을 다녀왔다. 미국 학생들의 수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학생들 수학교육을 비교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백선생의 수학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공헌하고 있다.

박암 선생님 영부인 별세

서애들에 오래계셨고 한빛 문화협회를 창설하신 바 있는 박 암 선생님 영부인께서 지난해 84년 9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연락처 : 6020 S.W. 25th # 8
Portland OR 97202
Tel: (503) 244-4620

"편집실에서"

갑자년 한해도 역사의 한 장 ()을 남기고 저물어가고 혁명의 울창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보를 아껴 주시고 애독하여 주신 고민어 러분과 공 사간 다망하심을 무릅쓰고 얻고를 보내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각계 각층의 인사들 회보를 발행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신 광고주 어러분 즐거운 성란이 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깃들시기 바라며 직장및 사업체외에 번영이 있으시기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편집실을 도와 주시고 채택질 해주셔서 대과없이 9권의 회보를 발행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고민 어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회보 편집과 인쇄에 많은 도움을 주신 Pro Litho (김길량씨) 및 Top Print (주범룡씨) 한국일보 서애들 처사 (조병우씨) 광상영씨등 제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투리고 회 김동진 님 사님께서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글을 늘 보내 주셨고 유대식 박사께서는 영문란을 꾸며주셔서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2세대 까지도 한인회보를 애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편집인 박송희)

고기 · 쌀 · 라면 · 채소가 제일 싼 가게!!

새주인, 새물건, 새가격으로

—시애틀 중앙식품이 확 바뀌었습니다—

연중무휴 OPEN: 아침 9:00~저녁 11:00

Tel: (206) 762-5620

중앙식품

사우스웨스트에 있는 화일센터 SAFEWAY바로앞집

9641 15TH AVE., S.W. SEATTLE, WA. 98106

- ◎고기 ○쌀 ○채소 ○라면은 언제나 최저가격으로
- ◎한국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
- ◎고국을 방문하시기전에 꼭 필 요한 선물류 등 열가판매
- ◎차없으신 노인분 무료배달

백 소아과

Kiwan Paik, M.D.

(206) 365-4533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5:00
토요일 10:00-1:00

※ 정문에서 왼쪽 첫번째 단층건물

PAIK'S PEDIATRIC CLINIC
NORTHWEST PROFESSIONAL CENTER
1570-115th St #16
Seattle, WA 98133



- * 결혼식
- * 장례식
- * 각종 축하 화환
- * 그린프랜즈
- * 전화(525-7422)만 주시면 언제든지 배달해 드립니다.

University
Village FLORIST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다과 ※ 도나트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미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O.K. 운전 학교

※ 교리가 운영하고 교리가 지도하는 운전학교
※ 운전 초보자에게 저렴한 교습비로 지도
※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
※ 최단 시일내에 운전면허증 취득
※ 필기 및 실기시험 100% 보장
※ 거리 및 지역에 제한없이 출장지도
※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면허증 받을수 있음

◎ 전화 문의 및 상담 환영

운전 학교: (206) 775-1588
집 : (206) 771-3680



김병관 부동산

□ 사업체 및 주택
알선해 드립니다.

□ 투자안내 및 상담환영

□ 성심껏 봉사 하겠습니다.

집 ☎ (206) 745-1367
사무실 (206) 365-4700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자니 전 파 사

비디오 TV 시계 카메라

전 문 수 리

전화 241-5144
(현대식품 옆)

로 명 재 산 부 인 과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 전문 (13년의 경험)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Federal way office

833-2580 927-8440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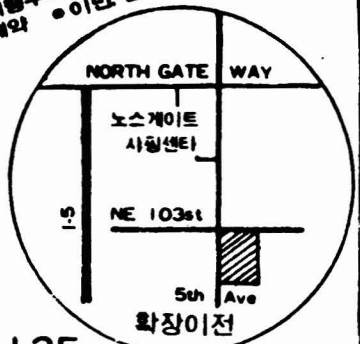
C AND C TRAVEL SERVICE

IATA, ATC, PATA 회원

523-7057

* 24 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K. P. 번역원

K.P. TRANSLATION SERVICES



언어의 장애로 이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담해 드리고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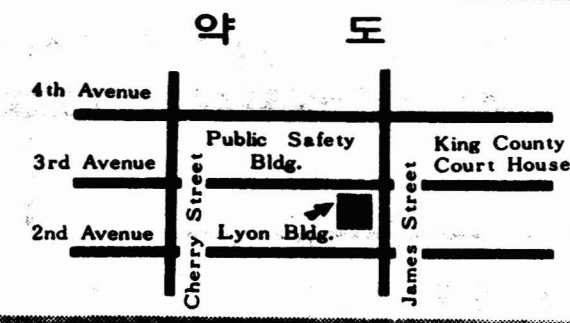
- *사건조사, 법률처리 알선
- *유능한 변호사 알선
- *법정 · 이민국 · 정부기관 · 병원 통역
- *계약서 · 보고서 · 각종 신청서류 · 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ESCROW 서비스
- *이민문제 상담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K. P. 번역원은 씨애틀 다운타운 중심가에 새 사무실을 설치하고 풀타임 프로페셔널 봉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K. P. Translation Services

K. P. 번역원

Suite 303 Lyon Building
607 Thir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4
(206) 682-3480



※ 3rd Ave.와 James St. 교차로 서북코너에 있는 Lyon Bldg. (씨애틀 시 법정 맞은편 건물) #303호실

For Tomorrow

by Eun Hui Ko
Senior (1982)
U.C.L.A.

Translated from Korean by DY

I am looking backward cautiously. Proudly, with symphonic eloquence, but a little precariously, there lies the eighty-year history of our immigration, compactly piled [experience upon experience], from the first labor immigration when ninety-seven Koreans stepped on Hawaii on October 13, 1903, through the post-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in 1945] settlement of Korean students in the mainland, to the flood of new immigrants moving into the metropolitan areas in America in the 1970's. Eighty years of ordeals and adversities, great and small, might have been too short a period in which we the strangers could have accomplished enough to fly our banners high in American winds, but clearly it was time enough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flag-pole at least.

During the eighty years, we did make a progress, expanding our economic power and elevating our social status--a progress indeed remarkable by anyone's standards. Why is it, then, the part played by the Korean community in American society today appears in the least different from the old way of strangers in the early immigration period?

The Korean community is an extremely closed group of immigrants whose lives do not extend beyond their own race.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anything wrong for a people of the same race to flock together to make a living. It has a positive aspect, instead, in that they can combine the vital energies of a race that way. The problem of the Korean community lies, not in the fact of a race living together, but in the excessive worship of money, the blind pursuit of glory, and the isolationism that closes the door to interaction with other races, all of which led Koreans to fight their fellow Koreans, red in teeth and claws, and which putrefies deeper and deeper into the core of the Korean community. Openness without clearly articulated values, irresponsibility that turns its face away from fellowship, and the virtue of cooperation and voluntarism truncated to bits and pieces--all these are elements that contain inherent dangers.

In view of these dangers hovering over the Korean community, we all owe it to ourselves to look back at the history of our immigration and re-examine our spiritual conditions and our attitudes toward life, because the rise or fall of a family, of a social group, or of a nation is influenced by the mental climate that permeates the social environment. The rise or fall of the Korean community is not determined by the material affluence nor by informational affluence.

First of all, we must respect and love ourselves, and we must extend the love and respect for ourselves to our neighbors, to our race, and to all the people in the world. Exclusionistic tendency to clam up originates from the lack of confidence in one's own self when he or she is [mingling] with other people. When all Koreans respect and love their own selves, the love for the Korean race will bud; then, only then, the sense of belonging to an inferior race, or the resulting blind worship of other races, or the exclusionist sentiments will disappear. Those who often complain about

their fellow Koreans with comments like "the Yopjons are an impossible people" are really denigrating themselves, for such an expression reveals the apparent folly of thinking that other Korean are all "Yopjons" while the critic is the only dignified Korean. Behind the impulse to show [Korean] excellence by means of denigrating other races with implicit racial slurs in lines that usually begin, "Mexicans are . . . " or "Black farmers are" lurks a mind that sees its own self inferior to others.

Only when we love and respect ourselves, we can regard all others with love and respect on an equal footing. Thus, we can consolidat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immigrants in American society through active interaction with other groups of people when we proudly present ourselves as their equals. This will be an important step toward advancing the position of the Korean community beyond its current situation which is analogous to the existence of a frog confined to a deep well.

Second, we must plant a sens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our consciousness by developing a willingness to concede a little of self-interest in cooperating with others. What makes the community formed around Korea Town in the mid-1970's so different from the early immigrant society is the absence of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the awareness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Despite difficult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y were confronted with, early immigrants overcame their ordeals by combining their energies in a cooperative spirit. In contrast, the present immigrant society is struggling to stay afloat in the absence of cooper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We are all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strong thriving on the flesh of the weak to our immigrant society. As a result, those who have a lot of money prey upon those who have not; those with a lot of knowledge exploit those who know little. In our obsession with self-interests, we are intolerant of even the smallest self-sacrifice for the greater interests and rights of the whole community. Such a trend leads us all, at the slightest sign of profitability of a particular business, to engage in that one business instead of taking on businesses that would complement one another. The final outcome of this foolish mentality will be an excessive competition which is certain to bring ruin to all those engaged in that one business, inviting the suicidal folly of going bankrupt all together--you and I.

When the problems of troubled youths rock the harmony of Korean homes, and when the community organizations like Korean Association turn into a house of chaos [riddled with disputes and controversies], all Koreans shake their heads mumbling in empty rhetoric of table talks, passing the buck to churches or community organizations, no one showing the slightest indication of taking on his or her small shar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Individual members of society, no matter what society they may belong, have the obligation to b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to society, and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working with others to carry out their duties.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ll individuals are obligated to be out on the frontline all through their lives, carrying the burden of the entire community upon their shoulders. What it means is that we are morally obliged to do our best even when we are in the last row of the community rear-guard, or even when we are in places unnoticeable to anyone. We also

need the virtue of conceding a little of self-interest for mutual benefit even in working out smallest differences that come up while cooperating with others.

Third, instead of pressing ourselves into a desperately competitive frame of mind, in which we tend to conduct our lives for the single purpose of showing off to others, we must have the abundant mental composure -- room in our mind--that enables us to lead an enriched human life to the true satisfaction of ourselves.

The longer the length of the immigrant life and the more stable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becomes, the spiritual emptiness felt in the mind grows greater. Why? This is the result of viewing the immigrant life only as an arena for the struggle for existence, rather than approaching it in a frame of mind poised enough to learn the true meaning of humanity. If my college alumnus bought a cadillac, I have to buy a Cadillac too whatever the strain I go through; if a friend in the neighborhood buys a house with a swimming pool, I have to move to a house bigger and better. We need to slough ourselves off boldly from this kind of pretentious life driven by a false sense of values.

The extravagant and pretentious outer show of self has led to a blind pursuit of glory, which in turn gave birth to a countless number of community organizations which are chronically plagued with gham-tu* fights at all levels.

Now I am cautiously looking ahead to the future of the Korean community. I ask how bright a future lies ahead in the ninety years and one hundred years of our immigration which entices us to fly as high as the wings of our imagination allow~~us~~.

Clearly tomorrow promises to be brighter than today; tomorrow is inviting us to leap forward into a future with brighter hopes. But to do this we need a present that is more solidly built on the foundation of sincere and earnest work. To build our history of immigration upon the bricks of every day work forg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ability is the only way to plant us Koreans on this land. It is the only way to make our future--ninety years and hundred years of our immigration--brighte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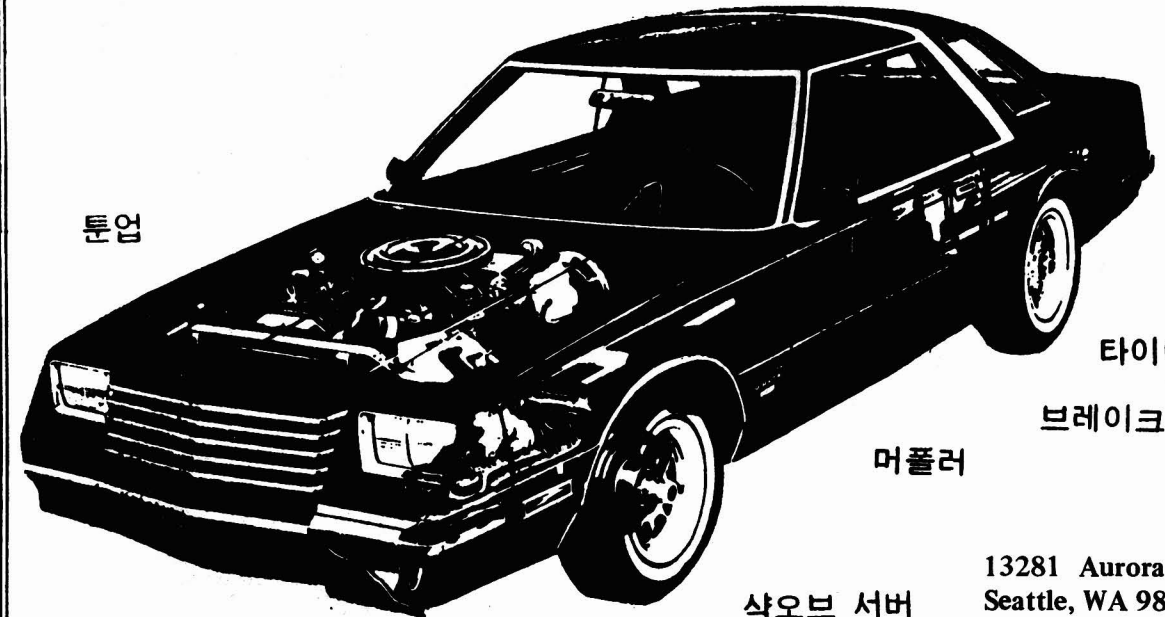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한인회보 1984년 제 12 호
발행인 : 오 계 희
편집인 : 박 승 휘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051-34th Ave NE #210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206] 362-4500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تون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삭오브 서버

트랜스 및 송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13281 Aurora Ave. North
Seattle, WA 98133
Tel: 362-4449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박화룡

각종 표구 액자 전문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제작판매
각종고급 서양화 특별엄가판매

※ 초상화 전화문의환영



간판

한글 한문 영문 아크릴 프렌카드

각종 특수체 및 조각간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1515 Roxbury S. 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CENTURY 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SAM YUN 878-3647 이 양 남 363-0443
SUSAN KIM 392-8535 김 일 영 874-4452
변 통 해 775-6976 윤 진 365-8607
조 인 364-5966 마가렛 한 365-5455

● 세탁소 :

① 11만5천+채고 (Kirkland)
4만 DN 월매상 7천5백 설비좋은

② 9만9천+채고 (타코마) 5만5천DN 월매상8천
● 샌드위치 : 3만9천+채고 (해더필드) 2만DN
6 일 영입, 월5천5백

● Deli & 샌드위치 : 17만+채고 6만DN
월매상3만8천 43%Mark-Up

● Breakfast & Lunch (수5일간 6:30AM~5PM)

① 12만5천+채고 5만5천DN 월매상7백불

② 11만5천+채고 4만DN 월매상7백불이상

● Cafe :

① 7만9천+채고 3만5천DN 월7천5백 6일영입

② 3만6천+채고 1만5천DN (7일간) 월매상6천

● Cocktail (식당) : 22만5천+채고 7만DN
월매상4만5천이상

● 샌드위치 : 24만+채고 13만DN 수5일간

월매상28-3만

● Grocery :

① 7만9천+채고 2만5천DN 월매상2만이상

② 6만5천+채고 1만5천DN (6일간) 월매상1만5천

● 노면 : 23U. 39만 10만DN 월매상10만

(약200마일 from Seattle)

※ 기타 다수 리스팅 있습니다.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일반 인컴 택스
- ※ 세무상담
- ※ 중소기업 장부정리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206) 623-4181/3

2809-4th Ave Seattle, WA 98121

류 종 합 보 험

Allstate®



- 생명 보험
- 교육 보험
- 가옥 보험
- 건강 보험
- 차 보험
- 사업 보험
- 용자 알선

언제나 신뢰하고
말길 수 있는

류 창 명 종 합 보 험

사무실 : 364-2450
자 택 : 362-2510



157가 AURORA NORTH의 SEARS 빌딩 내.
믿고 찾을수 있는 SEARS의 ALLSTATE를 찾아주세요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HA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